



새로운 조경수 92

동백나무속



김 사 일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1. 종류와 생육특성

차나무과(*Theaceae*) 동백나무속(*Camellia*)에는 약 80여 종의 동백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로 아시아의 온대 남부, 난대, 열대지방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서해안을 따라 황해도, 대청도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자생종으로는 동백나무 한 종

밖에 없다. 해남 대홍사, 여수 오동도, 고창 선운사, 당진 동백공원 등은 동백나무 자생지로 유명하며 넓은 면적에 걸쳐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동백나무는 내한력이 비교적 약한 편이지만 해풍과 내염력이 강하여 주로 남부해안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생육적지는 과습하고 건조한 곳은 좋지 않고 적습하고 부



▲ 동백나무 가로수(경남 창원시)



<표 1> 동백나무의 종류

국 명	학 명	일 본 명	영 명
동 백 나 무	<i>Camellia japonica</i> L.	ツバキ(ヤブツバキ)	Common Camellia
뜰 동 백 나 무	<i>Camellia japonica</i> L. ver. <i>hortensis</i> MAX.	オトメツバキ	Otome Camellia
흰 동 백 나 무	<i>Camellia japonica</i> L. for. <i>leucantha</i> MAKION.	シロバナヤブツバ키	White Camellia
애 기 동 백 나 무	<i>Camellia sasanqua</i> THUNB.	サザンカ	Sasanqua Camellia
설 동 백 나 무	<i>Camellia rusticana</i> HONDA.	ユキツバ키	Snow Camellia
당 동 백 나 무	<i>Camellia reticulata</i> L.	トウツバ키	

<표 2> 수종별 생육특성

수 종 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 포 지 역	생 육 입 지
동 백 나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고 7m까지 자라는 상록 소교목 • 밑부분에서부터 가지가 많이 착생하여 관목형을 형성함. • 잎은 호생하고 타원형 또는 장타원형 • 점첨두, 넓은 예저 얇은 톱니가 있음. • 잎의 길이 5~12cm, 넓이 3~7cm • 잎자루의 길이는 2~15mm로 털이 없음. • 잎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광택이 있고 뒷면은 황록색임. • 자방과 어린가지에 털이 없고 잎 뒷면에 흑점이 있음. • 많은 원예 품종이 개발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은 2~4월에 붉게 필. • 꽃은 양성화로 한개씩 액생 또는 정생(頂生)함. • 꽃잎은 5~8개로 서로 겹쳐 피는 홑꽃임 • 수술은 많고 꽃밥은 황색이고 암술은 가늘고 3개로 갈라짐. • 꽃잎은 완전히 벌어져 피지 않고 반쯤 핀 것 같이 오목하게 필. • 열매는 삭과로 둥글고 지름이 3~4cm이며, 9~11월에 익고 3개로 갈라진다. • 1/당 종자수는 590개, 1kg당 종자수는 1,100개 정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일본, 중국의 온대남부 이남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식질이 풍부하고 적습한 양토
뜰 동 백 나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와 잎의 특징은 동백나무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백나무 꽃은 반쯤 핀 것 같이 오목하게 피지만 뜰동백나무는 거의 수평에 가깝게 활짝 필 	<p>”</p>	<p>”</p>
흰 동 백 나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지와 잎의 특징은 동백나무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의 크기, 모양 등은 동백나무와 같으나 꽃색이 흰색으로 필 	<p>”</p>	<p>”</p>
애 기 동 백 나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가지와 잎 뒷면 가운데 옆맥에 털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은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담홍색으로 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남해안 • 중국 운남성 	<p>”</p>



수종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지역	생육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잎 뒷면에 동백나무와 같은 흑점이 없음. • 잎이 동백나무 잎보다 작고 난형 또는 타원형, 침두, 예저임. • 잎이 동백나무보다는 얇은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은 비교적 큰 편이고 암술의 길이도 길다. • 꽃은 어느정도 활짝 펴. • 많은 원예품종이 개발되어 있으며, 품종에 따라 꽃색과 모양이 다르다. • 1㎡당 종자 개수는 750개, 1kg당 개수는 1,800개 정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구주 	
설 동 백 나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기는 왜성이고 아주 낮게 가지가 퍼지고, 동백나무 중에서 가장 내한력이 강함. • 신초의 생장이 빨리 시작되고, 또 빨리 중지된다. • 새 잎의 잎자루에 털이 있음. • 삼목을 하면 발근이 잘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잎이 비교적 좁고 수술의 줄기가 황색을 띠 • 꽃은 비교적 활짝 펴. • 자방은 4~6실임. • 동백나무와 교잡에 의한 여러 종류의 잡종이 있음. • 꽃의 모양은 홑꽃~겹꽃, 꽃색은 분홍~백색등 다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내륙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식질이 풍부하고 적습한 양토
당 동 백 나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엽맥이 망상(網狀)이고 두드러짐 • 잎은 큰 편이고 침두, 점침두 넓은 예저 또는 예저 • 잎의 모양은 난형 또는 타원형 • 잎의 뒷면에 작은 돌기가 있음. • 원예품종도 적지 않게 개발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의 모양이 목단꽃과 같아 하여 목단 동백나무라는 별명이 있음. • 목단 꽃과 같이 꽃이 대단히 화려함. • 자방에 털이 있고 암술은 끝이 3개로 갈라짐 • 삼목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삼목이 불가능하여 기점으로 번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운남성 	<p>”</p>



▲ 동백나무 생울타리(제주도)



▲ 동백나무(자생종)

식질이 풍부한 양토로서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란다. 현재 우리나라에 조경 및 분재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동백나무의 종류는 많지 않으나, 세계적으로는 원예용으로 개발된 품종이 1,000종이 넘는다.

2.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

동백나무는 늦겨울에서 늦은 봄(1~5월)에 걸쳐 새 빨간 꽃이 광택이 나는 상록의 짙은 녹색 잎을 바탕으로 다소곳이 피어있는 모습은 정숙한 새색시의 정열적인 순정을 느끼게 하는 우아하고 순박한 꽃으로 예로부터 우리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여수 오동도, 해남 대흥사, 고창 선운사, 당진 동백공원 등에는 동백꽃이 피는 계절이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동백나무는 내한력이 약한 편이라 조경수로서 활용범위는 우리나라 남해안 이남지역과 서해안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많은 원예



▲ 딸동백나무

품종의 개발로 분식, 분재쪽의 활로는 밝다. 동백나무는 밑 부분에서부터 가지가 조밀하게 착생하여 큰 떨기를 형성하고 전지·전정으로 수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 가로수, 정원수 등으로 단목 식재를 하여도 좋고, 수벽·생울타리와 같이 열식을 하여도 좋다.

3. 번식 및 양묘방법

동백나무의 번식은 파종, 삽목, 접목 등의 방법으로 번식한다. 동백나무 종류 중에는 결실도 잘 되고 삽목도 잘 되는 수종이 있는가 하면, 결실은 되지 않으나 삽목이 잘 되는 수종, 또는 결실도 삽목도 잘 되지 않은 수종도 있다.

▶ 파종에 의한 실생묘양성 : 10~11월에 익은 열매를 장대로 떨어 모아서 2~3일 그늘에서 말리면 열매가 벌어져 종자가 빠져나온다. 이 종자를 2~3일간 맑은 물에 담가 두었다가 건져서 바로 추진 모래와



※ 동백나무(小紅葉)





※ 백동백나무



※ 동백나무(明石瀉)



※ 동백나무(三色亞介)



※ 당동백나무(Dahli-Queen)



▲ 애기동백나무

섞어서 다음 해 봄 파종 때까지 저온 저장 또는 노천 매장을 하여 두었다가, 3월 하순~4월 상순에 끄집어내어 1㎡당 220개(370cc 또는 250g) 정도로 파종, 5월 상순~6월 상순에 발아, 발아기대본수는 ㎡당 180본(발아율 80%), 득묘본수 150본, 평균묘고 10cm, 1년간 거치를 하여두었다 다음 해 봄에 ㎡당 20~30본 정도로 이식한다. 파종

주)※표시가 되어있는 사진은 쓰가모도요다로(塚本洋太郎)저, 원색 원예식물도감에서 옮긴것임.



동백나무속



※ 애기동백나무(昭和の榮)



※ 애기동백나무(銀月)



※ 설동백나무(품종명 무)



※ 설동백나무(품종명 무)

당년도에는 파종 후 상면에 벗짚을 얇게 덮어주고 그 위에 해가림을 하여 주어야 한다. (종자를 채취하여 가을에 직파를 하여도 무방하다).

▶삼목묘양성 : 수세가 왕성한 장령기 이하의 나무에서 가지를 채취하여 길이 10~20cm로 절단, 상단부의 잎을 2~4장정도 남기고 전부 제거한 후, 하단부는 예리한 칼로 엇비슷하게 단칼에 잘라서 삼수를 조제한다. 삼목시기는 봄(4월 중·하순), 여름(6월 중순~7월 상순)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봄에는 전년도에 자란 가지를 채취하여 삼수로 사용하고 여름에는 당년에 자란 녹지를 채취하여 삼수로 사용한다. 삼목 상의 상토는

비료분이 없는 황토가 좋고 m²당 삼목본수는 200본 정도, 삼목의 깊이는 삼수에 아래 잎이 상면에 닿을 정도로 삼입한다. 노지삼목도 가능하지만 활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실,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내에 삼목을 하여 분무장치를 설치하여주는 것이 좋다.

▶접목묘양성 : 열매도 열지 않고 삼목도 안되는 수종은 접목으로 번식하는 방법밖에 없고, 접목방법은 동백나무 실생묘에 절접을 하든가 기접(寄想)을 한다. 🌳

